

2010.10.25 미래정책연구실

□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바이오연료용에 대한 논란 재개

1. REUTERS(2010.10.19) 주요 내용

-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연료 수요의 증가는 식품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됨.
 - 지난 2007년 미국정부는 2020년까지 360억 갤런의 바이오연료를 의무사용토록 하는 에너지 법안 마련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함.
- 곡물가의 급등으로 식량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생산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일어남.
 - 바이오연료혼합사용의무제(Renewable Fuels Standard) 수정법안이 통과된 지난 달 이후로 미국 옥수수 가격은 다시 상승국면을 맞이함.
 - 이번 달 옥수수 가격은 미국 농무부의 옥수수 수확량 감소 전망으로 부셸당 6달러 가까이 급등함.
 - 옥수수 가격의 급등은 바이오연료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 상승, 통화변동, 기후요인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발생하는 것으로 바이오연료의 영향은 제한적임(Tim Gallagher, Bunge).
- 그러나 미국정부의 바이오연료용 곡물수요 확대정책은 옥수수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측면이 있음.
 - 올해 미국정부는 휘발유와 혼합되는 에탄올의 양을 12억만 갤런으로 정하였지만 2015년까지 15억만 갤런으로 증가시킬 예정임.

2. 시사점

- 바이오연료 수요확대는 세계 곡물시장의 주요 교란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, 옥수수와 같은 주요 곡물의 바이오연료용 수요 추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.

□ 달러 가치 하락으로 옥수수·밀에 대한 투자 수요 상승

1. BusinessWeek (2010.10.21) 주요 내용

- 옥수수 가격이 시카고 선물거래시장에서 6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섬. 또한 밀은 달러 약세로 투자자와 곡물 수입업자의 투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밀 선물가격이 상승함.
 - 12월 인도분 옥수수 선물거래 가격은 최근 5일 간 5.7% 하락한 후 처음으로 10.25센트(1.9%) 오른 부셸당 5.56달러를 기록함. 12월 인도분 밀 선물 거래가격은 4.25센트(0.6%) 오른 부셸당 6.75달러를 기록함.
 - 파리 런던국제금융선물옵션거래소(NYSE Liffe)의 1월 인도분 밀 가격은 50센트 상승한 톤당 210.75유로로 마감됨.
- 미 달러지수는 어제 1.6% 상승한 이후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섬. 중국의 통화정책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, 투자자들이 안전한 투자처를 찾기 때문임.
 - 미국의 통화 약세는 달러로 가치가 매겨진 상품의 가격을 다른 통화로 평가한 가격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, 투자의 대안으로서 천연자원의 수요를 증가시킴.
- 영국 VM 투자그룹의 실물 분석 전문가 Gary Mead는 이러한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해 곡물 투기 수요가 증가한다고 언급함.
 - 최근에는 사람들이 실물로 존재하는 상품을 더욱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곡물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고 전망함.

<세계 곡물 동향>

-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인 이집트는 올 12월 21일~31일 인도분 곡물을 29만 톤 구매함. 여기에는 미국산 밀 5만 5천 톤도 포함됨.
- 옥수수 가격은 미국 정부의 국내 생산량 3.4% 감소 전망 발표 이후 12% 상승함. 밀 선물가격은 지난 8월 6일 러시아가 곡물수출금지를 발표하던 당시에 비해 22% 감소함.
- 작년 기준 세계 3위의 수출국이었던 러시아의 올해 곡물 수확량은 가뭄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7% 감소한 6,190만 톤임. 이는 연방 통계국이 10월 1일 발표한 34%보다도 낮은 수준임.

- 러시아의 겨울 곡물 파종면적은 1,290만 ha로, 전년 대비 390만 ha 감소한 수준이라고 발표함.

2. 시사점

- 러시아의 밀 생산 감소로 밀 수출제한에 이어 달러 약세로 인한 밀 투기 수요증가는 세계 곡물시장의 교란 위험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.
- 특정품목의 가격상승에 따른 대체수요 등으로 주요 곡물가격 등이 동반 상승하는 경향(2007~2008년 경험)이 있으므로, 향후 지속적으로 곡물 시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.